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일 수요일 음 7월 21일 (13물)

기상정보

구름많고 소나기

제주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 낮 최고기온은 31~32℃로 예상된다. 한라산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60%
20%	성산	60%
20%	고산	20%
2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5/31℃

모레 ☀ 맑음 25/30℃

월드뉴스

대만 “중국군 대만침공 준비 가속”

2030~2035년 완료 전망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대만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일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을 훈련에 반영하며 합동 상륙작전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해 Z-20 공격용 헬기와 무인 수송 헬기, 최신 076형 감축상륙함, 무인기와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공격 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로 대만군의 해안 방어선을 우회해 본섬 진입을 노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군은 상륙부대의 통신과 병참 지원을 위해 저궤도 통신위성군 배치와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 4세대 연구개발에도 나섰다.

제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중국군의 합동 상륙작전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력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만 침공 계획이 2030~2035년 사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국방부는 6919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제출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잠수함구조함 등 전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생활

호스피스

한 치 화

제주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암을 완치시키려고 큰 수술을 받은 뒤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부인이 “호스피스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라고 물어온 적이 있다. 당혹스러웠지만 “지금은 암을 고치려고 열심히 치료하는 단계이지 호스피스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만큼 호스피스가 아직도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다.

1980년 봄 미국에서 부임한 중앙내과 교수님이 호스피스를 처음 소개했다. 그 시절 나이 지긋한 교수님들이 “호스피스가 저 세상 갈 때 웃으며 가자는 것인가?”라고 농담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하던 기억도 새롭다. 호스피스는 원래 오래전 서구 사회에서 병든 순례자를 돌봐주던 활동이다. 근대적인 개념의 호스피스는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차별하기 전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완결하는 곳, 죽음을 앞두고 멈추어 휴식하는 ‘장소’를 의미했다. 이후 특별한 장소 대신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간호와 증상관리 및 돌봄’, 나아가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입원 또는 가정에서 간호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활동은 1965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강릉에 개원한 ‘갈바리의원’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을 기점으로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은 개인 단체는 물론 병원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호스피스 돌봄을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암이 말기에 접어들면 환자와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환자를 돌보느라 수입이 줄거나 간병인 고용과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최근 호스피스 돌봄 비용 일부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돌봄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호스피스 봉사는 어려운 처지의 삶을 돕는 기쁨을 넘어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해 준다. 봉사자들을 위해 취업, 주택 구입, 금 융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려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호스피스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난 세월 풀지 못한 가족들과의 문제를 듣게 된다. 이런 경우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능하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구로부터 들어온 호스피스가 유교적 사고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인문·사회학적 및 종교적 연구도 필요하다.

암환자들을 진료해 온 경험을 반영해 호스피스를 ‘암을 고치기 위한 치료법이 더는 마련되지 못한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돕는 활동’이라고 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힘있게 헤쳐가는 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제주의 대표신문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재난의 첫 순간, 119종합상황실이 움직인다

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주춧돌

김동현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경

김주희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119종합상황실이다. 119종합상황실은 단순히 신고전화를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분석해 인명피해 가능성과 재난 확산 위험을 판단하고, 필요한 소방력을 출동시킨다. 필요하면 관할을 넘어 여러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현장 대응을 조정한다.

지난해 제주지역 119신고는 16만 8015건이다. 이 가운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신고는 7만7469건에 달한다. 한정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적절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재난에는 관할의 경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소방력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제주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보다 골든타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주 119의 출동 원칙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종합상황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가 항상 걷는 깨끗한 길, 그 발길을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그리고 동네 공원까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풍요로움 뒤에는 언제나 성실하게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다.

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등이 지방세에 속한다. 지방세는 국가 운영에 쓰이는 국세와 달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세금이라고 하면 흔히 규제나 부담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지방세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숨 쉬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외닿는 변화는 일상의 안전과 편의다. 도로를 정비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또 도서관과 체육시설,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문화와 복지에도 활용된다.

이처럼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제주의 미래에 동참하고 투자하는 일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모일 때 우리 지역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방세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위택스나 지방세 ARS 전화 142211 등을 활용해 우리 이웃과 지역을 밝히는 성실 납세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제일사

신한은행

전남로 →

1중앙로

NAVER

제일사

검색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

010-9086-8965